

日人 교장 축출 시도 학생들이 대거 퇴학... 주도세력 붕괴

3·1운동·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획

박해현의 새로 쓰는 광주·전남 3·1운동사
⑥ 11·3 학생독립운동의 진원지, 나주 3·1운동



나주학생운동 진원지였던 나주역.

마한왕국의 위용을 드러낸 금동관과 금동신발이 출토된 나주는 마한의 심장부라 할 수 있다. 영산 지중해를 중심으로 형성된 마한의 고유한 문화는 이 지역 정체성으로 형성되었다. 임진왜란의 상징 김천일이 나주 출신이고, 한말 의병봉기의 중심이자 3·1운동과 함께 가장 빛나는 독립운동으로 기록되고 있는 11·3학생독립운동의 현장이 나주라는 사실은 이를 말해준다. 독립유공자로 서훈된 사람만 91명에 달하는 등 나주 지역의 항일 독립운동은 '義鄉'의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지역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나주 3·1운동은, 한말의병전쟁과 11·3학생독립운동을 연결하는 매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나주 3·1운동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다. 正史적인 '독립운동사'조차 "(전략) 나주는 전라남도에서 역사가 길고 일찍부터 지식층이 많이 사는 고장으로 알려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방의 상황과 국제적인 대세의 움직임을 관망(觀望)하느라 그랬던지 3·1 독립운동에 있어서는 두드러진 활동이 적은 편이다"고 하여 나주에서는 '관망하느라' 만세 시위가 거의 없었다고 기술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기술 내용도 조잡하기 짝이 없다. 이를 바탕으로 이제껏 나주 3·1운동을 이해하다 보니 역사적 진실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나주 지역의 역사적인 위치나 지역 규모를 고려한다면 나주 3·1운동의 열기는 외견상 미약한 것은 사실이다. 물론 광주 3월 10일 시위를 이끌었던 김복현이나 시위에 적극 참여하다 투옥된 수피아 여학생 김안순은 나주 출신으로 나주인들의 항일 의지가 나약하지 않음을 입증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움직임이 미약하였다면 그 까닭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하겠다.

3·1운동 주도세력인 학생들이라고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광주·전남 지역에서 그 비중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크다. 특히 보통학교 학생들이 시위를 촉발시키는데 기여한 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11·3 학생독립운동을 촉발시킨 1929년 10월 30일 나주역 총독사건의 주역도 나주보통학교 학생들이었다. 나주보통학교는 1907년에 세워져 근대민족교육을 담당하고 있었다. 반면 1906년 영산포, 1908년 나주, 1909년 남평에 일인 학생들이 다니는 심상소학교가 세워졌다. 세지, 봉황, 왕곡 등에 심상소학교가 잇달아 세워졌다. 나주 지역에 심상소학교가 유난히 많

다는 것은 영산포와 공삼면 일대에 일본 상인이나 지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과 관계가 깊다. 1910년대 공삼면 농민들은 동양척식주식회사와 토지소유 분쟁을 하고 있어 일본인에 대한 감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다. 따라서 나주 지역 한국 학생들이 가졌던 항일의식은 고조되었을 것이다. 더구나 한말의병의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는 나주 지역의 학생들은 어느 지역보다 강한 민족의식을 지녔을 법하다. 한국 학생들이 다녔던 나주보통학교 학생들이 3·1운동 때 시위의 주역으로 나섰다 것은 당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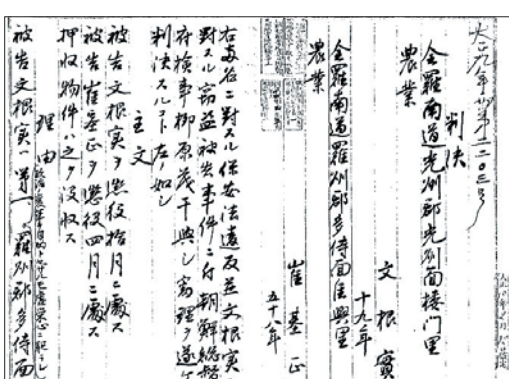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운동 때 나주보통학교 학생들이 시위를 이끌었다 할 어떠한 증거도 찾아지지 않는다. 필시 까닭이 있어 보인다. 이때 주목되는 것이 1921년 졸업생 명부가 없다는 사실이다. 1911년 제1차 조선교육령으로 보통학교 학생들은 4년 과정이었다. (1922년 2차 교육령 때 6년 과정으로 변경됨) 1910년 나주보통학교는 3개 학년 3학급 189명이었다. 한 학년에 63명 정도가 재학하고 있음을 알겠다. 그런데 1921년에 졸업생이 1명도 없고, 1922년 17명, 1923년 19명, 1924년 14명으로 15명 안팎으로 60여 명 입학과 차이가 크다. 1925년 졸업생은 74명, 이후 100명을 유지하고 있다. 당시는 경제 형편 때문에 중도에 탈락하는 학생들이 꽤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1925년 이후 통계와 1921년부터 1924년까지 졸업생 통계가 차이가 너무 크다.

바로 이 차이를 주목한 나주 지역 항토사학자 나천수 박사는 1917년 나주보통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2학년 때 일본인 교장을 축출하는 동맹 휴학을 주도하다 전원 퇴학당한 사건과 관련이 깊다고 하였다. 당시 18세로 일인 교장 축출을 내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주 지역에서는 1919년 3월 15일 최기정 등이 주도한 시위를 시작으로 이튿날 밤 읍내에서 태극기와 등불을 들고 시위를 하다 헌병대가 출동하여 해산시키는 상황도 나왔다

3월 중순에는 영산포에서 수백 명의 군중이 모여 시위를 일으키려 하였으나 광주에서 관검사 5명이 내려오는 등 경비가 삼엄하여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적지 않은 시위가 있었으나 자료가 충분치 않고 연구도 미흡하여 주도 세력 및 전개과정 등이 밝혀지지 않았다



문근실 재판 판결문

동맹 휴학을 주도하다 퇴학당한 박영남(박인전 금호그룹 회장 아명)이 생전에 '일인 교장을 몰아내는 동맹휴업'을 주도하다 퇴학당해 보통학교를 1년 6개월만 다녔다"고 회고한 사실과 또 다른 동급생 최일환이 일인 교장을 축출하는 동맹휴학을 주도하다 전원이 퇴학당했다고 증언한 사실에서 1918년에 나주보통학교에서 학생들이 항일 운동을 전개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어렵게 확인할 수 있다. 1921년 졸업생은 아예 없고 1922~24년 졸업생 숫자가 유난히 적은 것은 이들의 증언이 사실임을 뒷받침해준다 하겠다.

나주보통학교 학생들의 일인 교장 축출 시도는 3·1운동 직전에 있던 학생 항일 운동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러나 이들 학생들이 대거 퇴학당함으로써 3·1운동 당시 나주 지역의 만세 시위를 이끌 주도 세력이 무너지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또한 한말의병 봉기 중심지인데도 일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 까닭에 영산포 지역에 헌병분견대가 주둔하여 있는 등 일본군경의 감시가 심했던 것도 만세 시위를 일으키는 것을 어렵게 하였다고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주 지역에서는 1919년

3월 15일 최기정 등이 주도한 시위를 시작으로 이튿날 밤 읍내에서 태극기와 등불을 들고 시위를 하다 헌병대가 출동하여 해산시키는 상황도 나왔다. 3월 중순에는 영산포에서 수백 명의 군중이 모여 시위를 일으키려 하였으나 광주에서 관검사 5명이 내려오는 등 경비가 삼엄하여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다. 3월 23일 반남면에 있는 사립 남화학교 학생들이 광주 숭실학교 학생 김성민과 연결하여 3월 25일 반남 장날 시위하기로 하였으나, 김성민이 광주에서 체포되는 바람에 계획에 그치고 말았다. 4월 1일에는 세지, 왕곡 등지에서 봉화시위가 이어졌다. 동척과 토지 분쟁 중이었던 이들 지역의 시위는 강렬하게 전개되었다. 이와 같이 나주 지역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적지 않은 시위가 있었으나 자료가 충분치 않고 연구도 미흡하여 주도 세력 및 전개과정 등이 밝혀지지 않았다.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 둔다.

나주 시위는 이듬해에도 계속되었다. 1920년 11월 18일 고막원보통학교 낙성식을 시위 기회로 삼은 당시 19세 청년 문근실은 1919년 3월 15일 나주 시위를 이끈 경험이 있는 최기정에게 '대한독립만세' 글자가 새겨진 태극기 작성을 부탁하였다. 문근실은 낙성식에 모인 박만수 등 15명(재판기록)에게 태극기를 나누어주며 만세를 소리 높여 외치며 앞장서 시위를 이끌었다. 고막원보통학교는 1920년 2월 개교하였는데 그해 말에 교실이 준공된 것으로 보인다. 문근실은 징역 10월, 최기정은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항일의병의 전통과 식민지배의 모순을 경험한 나주 지역의 만세시위는 해가 바뀌어도 꺼지지 않은 채 계속되어 '11·3학생독립운동'이라는 비등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문학박사·초등대 교양교사학부 초빙교수



광주 최대 변화가! 최고 광고효과!
광주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전광판 광고 (신세계안과 옥탑)

DISPLAY 광고문의
신세계안과 1566-9988

01 광주 최고 유동인구 밀집지역 신세계백화점, U-Square, 광주종합버스터미널, e마트 등	02 광주 최대 광폭대로에 위치 20차선 차량 정체 극심 지역, 57개 버스노선 경유지(광주 최대)
03 무등일보, 뉴시스 뉴스와 생활정보 편성, 높은 주목도!	04 두 개 (무진대로, 죽봉대로) 광폭대로에 노출되는 광고효과 X2

1일 100회, 월 3,000회 노출!! (20초 광고 기준)

- ▶스크린 크기: 13.6m x 7.7m
- ▶해상도: LED풀컬러 국내 최고 화질
- ▶하루 18시간, 20구좌 상업 광고노출
- ▶광고노출 시점: 계약 즉시 가능

믿을 수 있는 그룹의 No.1 광고회사
SRB 에드 문의 062) 510-4650